| LS증권 Global Market Daily | 미국증시 코멘트 | 2026. 05. 15 |

전쟁 영향 반영된 지표 뒤로하고 미중 회담 결실 주목하며 증시 상승

미국시황/ESG 김윤정 _ 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 hyseong@ls-sec.co.kr

미중 정상회담 무난한 대화에 시장 안도, 3 대지수 상승

- 미 증시는 DOW +0.75%, S&P500 +0.77%, NASDAQ +0.88% 상승. 기술주 강세, 소재 약세. 다만, 기술주 내 종목별 방향성 엇갈리며 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0.5% 그침
- 미중 정상회담 첫날 일정이 무난하게 마무리된 데 따른 안도랠리. 중국에서의 미국산 제품 구매 소식도 전해지면서 증시 영향
-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선박 일부 통항 재개 소식과 선박 피격 소식에 등락,
  WTI $102.0(+1.0%) Brent $106.6(+0.9%)

미중 회담 첫날 대화는 우호적인 분위기 속 마무리

- 미-중 정상회담 진행중. 시 주석은 미국산 대두, 석유, LNG 등 상품 구매 및 보잉의 737 항공기 200 대 주문.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금번 회담에서 치적 선전용 성과로 목표하던 영역
- 남은 쟁점 사항은 중국 측에서 원하는 대만 문제와 무역거래 통제 완화 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를 '레드라인'으로 언급한 가운데, 중국은 그간 활용해오던 희토류 외에도 이란 전쟁 협조를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
- 백악관 관계자는 양 정상 모두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했으며, 중국은 해협 개방을 도울 의지를 드러냈다고 밝힘.
  또한, 이란에는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 향후 중국의 역할을 기대

전쟁 영향 반영되는 경제 지표에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 지속

- 4 월 소매판매 MoM +0.5% 전월비 둔화·컨센 부합. 이란전쟁 영향 주유소판매 +2.8% 제외하고 차량, 가구, 의류, 액세서리, 백화점 등 에너지 외 소비영역에서는 감소세
- 4 월 미 수입물가 MoM+1.9% 전월·컨센 대폭 상회, 4 년래 최대치. 이란전쟁 여파 연료·윤활유 수입 +16.3% 주효
  4 월 미 수출물가 역시 MoM +3.3% 전월·컨센 대폭 상회
-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21.1 만명으로 전주·컨센 상회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NVDA	엔비디아	+4.4%	미 상무부 중국 10사 H200칩 판매 승인 소식에 주가 강세.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대형 빅테크향 매출 재개 기대감에 사상 최고가 경신. 다만 현재까지 인도된 물량은 없으며 실제 매출 발생 여부는 미지수. 또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엔비디아 칩의 중국 내 추가접근 권한과 관련해 공유할 업데이트 내용이 없다고 일축. 차주 실적 발표 중국 매출 전망에 주목
BA	보잉	-4.7%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37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언급. 다만 제프리스 등 주요 IB예상(500대)보다 낮은 수준의 규모, 백악관의 즉각적인 공식 논평 부재에 실망매물 출회
AAPL	애플	-0.2%	오픈AI, 애플에 파트너십 계약 위반 소송 검토중이라는 보도에 주가 약세. 오픈AI 측은 애플 시스템 내 챗GPT 통합 성과, Siri 및 다양한 애플 앱과의 깊이 있는 통합 등을 기대했으나, 실제 애플 운영체제에서의 활용도는 제한적이며 기능 노출도 미비한 상황
AMAT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0.9%	장 마감 후 실적발표, 시간외 급등했으나 상승 폭 축소되며 +0%대 상승중. 어닝 서프라이즈 및 차기 분기 가이던스 상향에 주가 강세. 주요 고객사들의 CAPEX 확대가 실적 견인. CEO는 AI 연산 수요는 다년간 지속될 것이며 업계 유례없는 장기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다 언급. 또한 AI향 고부가 장비 비중 확대로 매출 총이익률이 2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강조
MSTR	스트래티지	+5.0%	미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 법안 가결(찬성 15명, 반대 9명) 소식에 암호화폐주 강세. 클래리티 법안은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을 대기